

## 학교폭력에 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 연구\*

채 희 태\*\* · 옥 정 달\*\*\*

### Study on Awareness of Pre-Service Special Teachers on School Violence\*

Chae, Hee-Tae\*\* · Ok, Jung-Dal\*\*\*

#### 요약

**[목적]** 예비특수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방법]**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명의 설문지의 응답결과를 기초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결과]** 첫째, 사회현상으로서 학교폭력을 전반적으로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학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둘째, 학교폭력의 유형별 인식에서는 제시된 13개 학교폭력 유형에 대하여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학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셋째, 15개의 행동유형이 학교폭력인지에 대한 개념 인식에서는 전체 응답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식했고 성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일부 문항에 대하여는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항목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폭력 게임, 교사의 무능, 동료의 무관심, 약한 처벌, 교사의 편에 등에 대하여는 여학생이, 교사와의 갈등, 성적 지상주의, 공격성, 사회적 무관심에 대하여는 고학년이 일관되게 원인으로 더 인식하였다. **[결론]**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치관)에서는 전체 응답자가 폭력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으나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더 분명한(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문제해결로서 폭력을 사용하는 태도에서 유의하게 여학생이, 방관적 태도에 대하여는 고학년이 유의하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폭력에 대한 특정 가치교육에서 성별, 학년별 적합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학교폭력, 예비특수교육교사, 대학생인식조사

####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wareness and attitude of pre-service special teachers on school violence. **[Method]**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against 195 students were used to calculat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nd compare the significance of the response difference per group. **[Results]**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chool violence as a social phenomenon was recognized as severe or very severe, an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per class year, as for gender, female students found it more severe. Second, with respect to awareness per school violence types were all recognized as severe or very severe, an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per class year, as for gender, some ques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er gender. Third, with respect to the concept awareness, the respondents recognized all of them as school violence, an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per gender or class year, some question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per gender. Fourth, with respect to the cause of school violen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per gender or class year, bu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per question. **[Conclusion]** With respect to the attitude (values) towards school violence, all respondents were found to have clear values towards violence, and whil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per class year, as for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a clearer (more positive) attitude.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service special teacher, university student awareness survey

\* 이 논문은 2019년도 나사렛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제 1저자,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Nazarene University

\*\*\* 교신저자, 나사렛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okjidal@kornu.ac.kr)  
Professor, Department of Secondary Special Education, Nazarene University

## 서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회구성원의 규칙과 태도를 배우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경험하며 사회적 인간으로 성장되어가는 장이다. 환경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스스로를 구성해가는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특히 사회적 경험을 통하여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을 결정해 나간다.

배움과 성장을 통하여 한 인격체가 형성되어가는 중요한 장이어야 할 학교가 폭력 문제로 관계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가 되고 있음을 매스컴을 통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된다. 갈등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 시간을 초월하며 다양한 양상으로 가해와 피해의 관계를 만들어 내며 양자 모두의 심신 성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진지한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1995년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200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정[1], 5년 단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2012년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3] 및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4]에 의거 교직소양 분야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2014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로 과목명 변경)을 신설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체계 및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교사 및 예비교사의 대처능력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고[5, 6],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및 예비교사 차원의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도 다양한 변인 간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진행되어 왔으며[7, 8, 9].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10, 11]. 그러나 연구의 대상이 대부분 일반학교 또는 일반학생이나 일반교사 등이 되어온 반면 장애학생의 학교폭력 취약성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룬 연구라 하더라도 대부분 통합학급교사 또는 일반교사를 대상으로 인식 조사가 이루어졌다[12, 13, 14].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시대에 통합교육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장애학생에 대한 ‘빈번한 괴롭힘 또는 잠재적 학교폭력’[15]을 꼽고 있고, 장애학생의 66.1%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16]되고 있으며 폭력의 유형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된 대부분의 유형에서 장애학생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17]. 장애학생은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오가며 수업에 참여하기에 학교폭력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과 역할 및 협력은 장애학생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12].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에 따르면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에 관련될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위원이나 전문위원 또는 참고인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특수교육전문가의 학교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미래 교직을 수행할 예비교사들의 학교폭력 대처 능력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는 예비교사를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에 일반교육에서는 그간 유아교육에서부터 중등교육영역에 이르기까지 예비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연구가 장애학생 및 비장애학생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18, 19, 20]. 그에 비해 예비특수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조사는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매우 미흡하다. 현직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21]와 현직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에 대한 비교연구[22] 등은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양성과정에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인식조사는 RISS학술정보연구서비스 검색결과(검색어: 학교폭력, 장애학생, 예비특수교육교사 또는 특수교육 전공 대학생, 특수교육 양성과정 등)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예비특수교사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반을 조사하여 교직 소양 과목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강의의 기본 방향을 점검하고 장차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처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사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학교폭력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1-1.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1-2.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1-3.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 1-4.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학교폭력을 대하는 예비특수교사의 태도는 어떠한가?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참여대상자는 충남 소재 A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범계열 대학생 19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226부를 배부하여 212부를 회수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7부를 제외하고 195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정보는 <Table 1>과 같다.

&lt;Table 1&gt; Background Information

항목	구분	n	%
성별	남	48	24.6
	여	147	75.4
	계	195	100
학년	1학년	55	28.2
	2학년	54	27.7
	3학년	46	23.6
	4학년	40	20.5
	계	195	100
학과	특수교육과	96	49.2
	중등특수교육과	99	50.8
	합계	195	100

## 조사 도구

본 연구의 설문문항은 [20, 23]에서 사용한 학교폭력관련 설문 문항을 참고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수정·보완된 설문의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받고자 학교폭력예방교육 강의담당교수 2명에게 문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대학생 5명에게 사전검사를 1회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구성된 설문지는 일반 배경 정보 3문항,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1문항,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13문항,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15문항,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27문항, 학교폭력 태도 14문항 총 7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작성방법은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묻는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1=매우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고, 내적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37이다. 설문이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lt;Table 2&gt; Questionnaire

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일반적인 사항	• 성별, 학과, 학년	3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 사회문제로서 현재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정도	1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 신체폭행, 언어폭력, 언어적 놀림, 집단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금품 갈취, 협박, 휴대폰 욕설, 강제적 심부름, 인터넷 비방, 성추행, 성폭행, 집단적 폭행	13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 은어숙어 사용하기, 인터넷에 다른 학생에 대한 악플달기, 협박하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비웃기, 헐뜯하기, 학업 성적 놀리기, 외모 비하하기, 특정 학생에게 욕하기, 다른 학생 물건 고의로 망가뜨리기,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하지 않기, 강제로 심부름시키기, 강제로 돈 빌리기	15

<Table 2> Questionnaire (continued)

영역	문항 내용	문항수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해학생의 공격성, 가해학생과 부모와의 불화, 가해학생과 비행친구의 동료관계, 가해학생의 학교생활부적응, 가해학생과 교사의 갈등,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 피해학생의 외모, 피해학생의 알미운 행동, 피해학생의 친구관계 등</li> </ul>	27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교폭력에 대한 태도(가치관) 문항(예: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li> </ul>	14

###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A대학교의 사범계열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혹은 집단별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자는 총 226명을 만났으나, 실제 설문에는 212명만 참여하였고, 이 중 답변을 불성실하게 한 7부는 제외하고, 195부만 분석하였다.

### 자료의 처리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for Windows 22.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빈도 및 신뢰도 분석, 독립표본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하였고,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원인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태도 등을 비교하기 위해서 성별, 학년별에 따라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 연구 결과

### 학교폭력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인식

#### 학교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성별에 따른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답변의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학교폭력의 수준은 4점 척도(1-매우 심각하다, 2-심각하다, 3-심각하지 않다, 4-전혀 심각하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낮은 점수 일수록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응답자들은 사회현상으로서의 학교폭력 문제를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학교폭력의 정도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년별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고학년보다는 저학년에 편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School Violence Severity

구분		n	M	SD	t	p
성별	남학생	48	1.81	.76	2.51	.01
	여학생	147	1.56	.55		
학년별	저학년	109	1.62	.65	.08	.29
	고학년	86	1.62	.57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인식**

성별 및 학년별에 따라 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 13가지에 대하여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정도는 다음 <Table 4>와 같다. 심각 수준은 4점 척도(1-매우 심각하다, 2-심각하다, 3-심각하지 않다, 4-전혀 심각하지 않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응답자들은 제시된 13개의 학교폭력 유형에 대하여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며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제시된 폭력유형에 대하여 유의하게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으나, 학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유형별 인식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성별 분석을 <Table 5>와 같이 하위 문항중심으로 살펴보면, 언어폭력, 언어적 놀림, 사이버 따돌림, 금품갈취, 휴대폰 욕설, 인터넷 비방, 집단적 폭행 등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유형 가운데 가장 심각도가 높게 나온 유형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언어폭력, 언어적 놀림, 휴대폰 욕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석에서는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언어폭력과 언어적 놀림을 더 심각한 학교폭력 유형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ypes of School Violence

구분		n	M	SD	t	p
성별	남학생	48	1.92	.70	2.51	.00
	여학생	147	1.55	.40		
학년별	저학년	109	1.70	.55	1.61	.14
	고학년	86	1.58	.47		

<Table 5> School Violence Subtype

구 분		n	M	SD	t	p	
성별	언어폭력	남학생	48	1.50	.82	2.43	.00
		여학생	147	1.20	.43		
	언어적 놀림	남학생	48	1.56	.87	2.41	.00
		여학생	147	1.24	.46		
	사이버따돌림	남학생	48	1.85	.85	3.68	.03
		여학생	147	1.37	.58		
	금품갈취	남학생	48	2.33	.75	3.01	.03
		여학생	147	1.97	.66		
	휴대폰 욕설	남학생	48	1.71	.84	3.33	.00
		여학생	147	1.28	.47		
	인터넷 비방	남학생	48	1.77	.88	2.45	.00
		여학생	147	1.44	.60		
	집단적 폭행	남학생	48	2.15	.92	3.68	.01
		여학생	147	1.61	.68		
학년별	언어폭력	저학년	109	1.33	.62	1.67	.00
		고학년	86	1.20	.48		
	언어적 놀림	저학년	109	1.37	.64	1.16	.04
		고학년	86	1.27	.54		

\*전체 항목 중 유의한 결과 항목만 제시하였음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

특정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학교폭력의 개념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서술된 15개의 행동유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1-학교폭력이다, 2-학교폭력이 아니다)를 묻는 문항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에서 참여자는 제시된 15개 행동유형을 학교폭력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하지 않기, 은어, 속어 사용하기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으로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년별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이 학교폭력의 개념을 좀 더 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과 같이 하위항목별로 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유의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별에서는 인터넷에 다른 학생에 대한 악플달기, 외모 비하하기,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하지 않기 등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았고,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높게 나왔다. 학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하위항목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6> School Violence concept

구분		n	M	SD	t	p
성별	남학생	48	1.08	.11	.21	.38
	여학생	147	1.07	.09		
학년별	저학년	109	1.07	.10	.17	.79
	고학년	86	1.07	.09		

<Table 7> School Violence Concepts by Subtype

구분		n	M	SD	t	p	
성별	악플달기	남학생	48	1.08	.27	1.04	.00
		여학생	147	1.02	.14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남학생	48	1.02	.14	1.60	.01
		여학생	147	1.07	.25		
	외모비하하기	남학생	48	1.06	.24	.93	.02
		여학생	147	1.03	.16		
	특정친구와 사이버게임 하지 않기	남학생	48	1.35	.48	1.48	.00
		여학생	147	1.24	.42		

\*전체 항목 중 유의한 결과 항목만 제시하였음

###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인식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제시된 27개의 유형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4점 척도(1-매우 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했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그러한 유형들이 학교폭력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학교폭력의 원인 관련 27개의 항목 중 피해자 관련 요인(외모, 환경, 친구관계, 공격성, 행동)에 대하여는 2.3~2.79 척도점, 가해자 및 제도 관련 요인(약한 처벌, 가해학생 공격성, 학교 및 담임교사의 대응 등)에 대하여는 1.35~1.85 척도 점수로 인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자 개인 요인보다는 가해자 및 제도 요인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전체 항목 중 '학교폭력에 대한 약한 처벌'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은 반면, 피해학생의 외모(남 2.79, 여 3.19)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성별,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저학년보다 고학년이 제시된 27개 항목들을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더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들어가면 <Table 9>에 제시된 대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별에서는 폭력적인 게임 중독, 담임 선생님의 무관심, 동료 학생의 무관심, 학교폭력에 대한 약한 처벌, 교사의 편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등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할 정도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지목하였고, 학년별에서는 가해학생과 교사의 갈등, 성적 위주의 학교 분위기, 피해학생의 공격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등을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할 정도로 학교폭력의 원인 항목으로 지목하였다.



<Table 8> Cause of School Violence

구분		n	M	SD	t	p
성별	남학생	48	2.13	.39	3.11	.13
	여학생	147	2.04	.34		
학년별	저학년	109	2.13	.35	.14	.70
	고학년	86	1.97	.35		

<Table 9> Cause of School Violence subtype

구분		n	M	SD	t	p	
성별	폭력적인 게임 중독	남학생	48	2.27	.93	4.00	.00
		여학생	147	1.68	.70		
	담임선생님의 무능력	남학생	48	2.27	.89	1.94	.01
		여학생	147	1.99	.75		
	동료학생의 무관심	남학생	48	1.73	.73	1.29	.01
		여학생	147	1.58	.57		
	학교폭력에 대한 약한 처벌	남학생	48	1.35	.56	1.13	.03
		여학생	147	1.25	.48		
	교사의 편애	남학생	48	2.29	.89	1.88	.02
		여학생	147	2.02	.76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남학생	48	1.85	.87	2.52	.03
		여학생	147	1.51	.61		
학년별	가해학생과 교사의 갈등	저학년	109	2.27	.74	2.91	.01
		고학년	86	1.97	.69		
	성적위주의 학교분위기	저학년	109	2.36	.64	2.67	.01
		고학년	86	2.07	.54		
	피해학생의 공격성	저학년	109	2.64	.62	1.24	.02
		고학년	86	2.48	.48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	저학년	109	2.17	.76	1.79	.03
		고학년	86	1.99	.67		

\*전체 항목 중 유의한 결과 항목만 제시하였음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학교폭력과 관련성이 있는 딜레마 문항을 통해 성별 및 학년별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10>과 같다. 학교폭력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태도를 14개(역문항 3개 포함)의 유형으로 질문하여 4점 척도(1-매우그렇다, 2-그렇다, 3-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3개의 역문항을 제외하고는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딜레마 문항(예,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때리는 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에 대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문항 3개에 대한 역산처리를 포함한 전체 문항의 척도 점수가 평균 3.21을 보임으로써 학교폭력 관련 행위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태도(가치)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유의할 정도로 더 분명하게(긍정적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에서 다소 더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를 좀 더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에 제시된바와 같이 하위항목 가운데 특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의 항목에 대하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에서는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면 나까지 왕따 될까봐 두려워서 모른 척 할 것이다.’란 항목에서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유의할 정도로 학교폭력에 대한 가치판단이 바람직하게 나타났다.

<Table 10> School Violence attitude

구분		n	M	SD	t	p
성별	남학생	48	2.79	.39	.23	.00
	여학생	147	3.00	.32		
학년별	저학년	109	3.29	.37	.35	.23
	고학년	86	3.26	.45		

<Table 11> School Violence attitude subtype

구분			n	M	SD	t	p
성별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남학생	48	3.40	.70	-3.20	.000
		여학생	147	3.75	.49		
학년별	왕따 괴롭힘을 모르는 척 할 것이다.	저학년	109	3.14	.70	1.99	.04
		고학년	86	3.35	.75		

\*전체 항목 중 유의한 결과 항목만 제시하였음

##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예비특수교사 195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현상 전반에 대한 심각성을 비롯하여, 폭력의 유형별 심각성, 학교폭력의 개념 및 원인에 대한 인식조사와 폭력에 대한 태도 및 가치관을 조사 하였다. 이와 함께 성별, 학년별 인식이 어떠한지를 동시에 알아봄으로써 교원양성과정에서의 고려 점과 예비특수교사들에게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서 제시한 형식에 따라 크게 인식과 태도로 나누고 각 연구의 세부 문제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예비특수교사들은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현상에 대하여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 대학생, 교사, 학부모, 기타 성인 대상의 모든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23, 24, 25, 26]. 성별 특성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인식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개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예측 인자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지지해온 만큼[27] 이 결과로만 본다면 응답 집단의 경우 여학생이 학교폭력 노출 또는 위기의식 경험이 더 많았을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할 연구결과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바 있으며[28], 대도시의 여학생이 학교폭력 가해 또는 피해자가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29].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는 없었으나 학부모 연구에서도 여자 학부모들이 남자 학부모보다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26]. 그러나 반대의 연구결과들도 다수 보고되었다. 교육부 2014년 보도자료[30]와 또 다른 연구결과[31]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응답률이 남학생에게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험의 빈도는 연구에 따라 또는 조사 집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별 비교에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이었다. 조사 집단에 따라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인식의 심각도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학교폭력 전반에 대한 인식과 성별 특성간의 상관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이므로 성별로 분리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둘째, 학교폭력의 유형별 심각성에 대하여는 전체 유형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언어폭력, 언어적 놀림, 휴대폰 욕설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중·고등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조사 결과와 일치한다[23]. 학생과 교사 모두 이 세 가지의 학교폭력 유형을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학생들보다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유형은 언어가 폭력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는데 이는 교육부가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이후 2013년 1차 조사의 금품갈취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태조사에서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피해응답율을 보이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32]. 학생들은 폭력의 심각도에 대한 유형별 질문에 폭력의 강도보다는 빈도 중심으로 심각성에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 13개의 폭력유형 전반에 대한 성별 조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24]와 일치하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인식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이 폭력이 앞으로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일반적 인지 수준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남자 교사들보다 여자 교사들이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24]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연령에 상관없이 여성에게서 더 크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도가 높은 언어폭력의 경우도 여학생이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신체폭력이 주종을 이루는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은 언어폭력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는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경우도 여학생 관련성이 더 높는데, 이는 스마트폰 사용 및 중독율과 SNS 사용률이 여학생에게서 월등히 높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33]. 특정 폭력유형별로

분석하면 남녀 간의 인식에 차이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보편적 인식과 폭력 유형별 인식에는 인식의 정도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학년별로는 남녀 간의 차이만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해 학교폭력 유형 전체에 대한 심각도 인식이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는 다른 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학생보다 윗세대인 교사나 학부모가 학교폭력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상과 비교해 볼 수 있다[24]. 즉,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폭력 문제를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의 일반적 성숙과 관련지어 볼 수 있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직 과목을 이수한 학생이 고학년에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점이 인식의 성숙을 가져왔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의 개념, 즉 특정 행동 유형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대부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인식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의 항목, 즉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하지 않기’와 ‘은어와 속어 사용하기’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한 가해라고 보지 않는 경향은 사이버 게임의 특성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여가활동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34]. 앞서 학교폭력 유형별 심각성 질문에서 참여자들은 집단 따돌림이나 사이버 따돌림을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친구와 게임하지 않는 행위를 따돌림이라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친구와 사이버 게임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이들 응답자들도 폭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은어와 속어는 금지의 대상인 욕설과는 달리 소속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도구로 많이 사용되거나[35] 또는 뜻을 명확히 모르고 사용한다는 점[36], 이들 언어가 일정정도 하위문화로 형성되었다는 점[37, 38]에서 이를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은어와 속어는 욕설과 마찬가지로 집단 이외 또는 타인에 대한 반항, 냉소, 자기 우월적 과시와 같은 심리상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37] 은어와 속어의 폭력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의 개념에 대하여 성별, 학년별로는 인식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학교폭력 개념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단, 외모 비하와 사이버 환경에서 일어나는 폭력(악플, 사이버 게임 소외)에 대하여는 남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폭력 유형에 대한 남학생의 개념 인식 수준이 여학생 보다 낮거나 또는 여학생의 인식 민감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여학생의 높은 민감성은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 응답율이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들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9, 40]. 그리고 외모비하를 포함한 언어폭력은 온·오프를 막론하고 중등 및 대학생 연령대에서 가장 비중이 큰 폭력이고 사이버 괴롭힘은 네 번째라는 점에서[41] 폭력 감수성 및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비록 이 연구에서 학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2011년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의 연구를 참조하면, 사이버상 피해경험이 청소년에서 대학생으로 가면서 더 증가했다는 것으로 보아[40]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직과목이 양성과정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도 의미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은 성별 및 학년별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데,

주목할 것은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가해자 특성 및 가해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의 문제를 꼽은 반면, 피해학생의 외모나 친구관계, 가정환경, 공격성 등과 같은 피해자 특성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보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은 학교폭력의 문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이 폭력의 원인으로 피해학생 측의 폭력 유발 요인보다는 가해학생의 개인 심리적, 가정적, 학교적, 지역 사회적 요인을 지목한 것과 일치한다[42] 항목별 척도분석에서 주목할 것은 전체 응답자들이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폭력에 대한 약한 처벌’의 문제를 꼽은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나 (제도적)방책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설문 참여자들은 앞서 학교폭력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학교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에서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신고, 조사, 체계 개선, 가해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같은 정책과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한 반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예비특수교사들이 학교폭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약한 처벌’을 든 것은 좀 더 심층면담을 통해 그 진술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지만, 표면적으로는 우려할만한 현실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응답은 달리 말하면 ‘강력한 처벌’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해결의 선결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처벌적 접근에 대한 신념을 예비교사들이 가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13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해주는데, 학교폭력 가해행동 중단 이유 중 가장 높게 나온 응답이 가해학생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44.0%)라고 보고하고 있다[43].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적 접근보다는 교육 및 선도적 중재가 더 필요함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 원인에 대한 성별, 학년별 전반적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일부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흥미로운 것은 차이를 보이는 모든 항목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그리고 고학년이 저학년보다 학교폭력의 원인 항목들에 대하여 더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참조, <Table 9>). 이는 특정 학교폭력 유발 영향 요인에 대한 인식 교육이 남학생과 저학년에게 좀 더 섬세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학교폭력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 또는 가치관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의 약점이나 장애를 이유로 놀리거나 비하하는 문제, 피해자의 행동 양식이 가해행위를 유발하는 문제(예, “다 당할만한 이유가 있다.”) 등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에 비해 더욱 분명한 가치관과 태도를 보였다. 반대로 별명을 부르는 문제, 폭력행위의 정착성 또는 안정성 문제(예,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을 할 것이다.”), 친구 간 갈등에 대한 성인 개입의 문제(예, “이 문제를 교사나 부모에게 의논할 것이다.”) 등에 대하여는 태도와 가치관의 명확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렇게 태도의 명확성은 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가해행위는 성인기 폭력성과 관련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치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다양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청소년기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성인기 초기 반사회적 성격, 약물중독, 우울 등의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44, 45, 46].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에서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본 연구의 전반부 인식 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저학년 보다는 고학년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더욱 분명한 태도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은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는 항목에 대하여 남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에도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이 문항은 개인의 권위주의적 공격성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질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권위주의적 성격은 소수집단(예. 피해자 집단)에 대한 편견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47, 48, 49],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50], 특히 신체적, 외향적 공격성향은 남자에게서 더 빈번하다[51, 52]. 이러한 선행연구는 이 항목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며 양성과정의 교직소양 교과 운영에 있어 반권위주의적 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 ‘왕따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면 나까지 왕따 될까봐 두려워서 모른 척 할 것이다.’라는 항목에서 유의한 태도의 차이를 보였는데, 고학년에 비해 저학년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의 차이를 유발하는 저학년과 고학년의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천’ 교과목 수강생이 주로 고학년이라는 점에서 수업을 통한 인식의 성숙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고학년은 교과목 강의를 통해 ‘학교폭력의 방관자’ 개념을 이미 학습했고 방관자의 올바른 태도와 방관자의 개입이 학교폭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충분히 학습했다는 점이 이러한 태도의 차이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인의 인식의 지평은 개인의 태도를 일정 정도 규정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미래의 교사들이 갖는 학교폭력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선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만약 교사들이 폭력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를 갖지 못하고 학교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다면 이는 가해 강화자(reinforcers of the bully)를 양산하게 될 수 있고[53], 교사의 공정하지 못한 처리에 내포된 가치는 그대로 학생들에게 내면화하도록 메시지를 주는 것일 수 있다.

이상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예비특수교사의 전반적인 특성과 성별, 학년별 차이 유무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교과목 운영에 있어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기술적 접근만이 아니라 예비특수교사의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나아가 성별 적합(gender specific) 차원, 학년별 적합 차원의 접근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 References

- [1] Legislative Office (2014).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measures act*. Retrieved October 01, 2019 from <http://www.moleg.go.kr>.
- [2] Ministry of Education (2015). *3r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basic plan*.
- [3] Legislative Office (2012). *Teacher qualification commands enforcement regulations*[Annex 3] Article 12(1) (November 12, 2012. No. 164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4]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2) Notice No. 2012-14. 『Detailed standards for acquiring teacher qualifications for kindergarten, elementary, secondary and special schools』 (MEST Notice No. 2011-15) revised notice(2011.11.21.).
- [5] Kang, E. J. (2016). Development of the prospective teacher's school bullying intervention competence scal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 [6] Lim, J. Y. (2015). Development of diagnostic scale of teachers' competency to prevent and cope with school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 [7] Jung, S. P., & Kim, J. W. (2018). A study on school violence and CPTED awareness of K-12 teachers and staffs - focusing on CPTED pilot school project participants. *Journal of Community Safety and Security by Environmental Design* 9(2), 247-277.
- [8] Sim, E. J. (2017). Study on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parents and teachers for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in pre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ungang University.
- [9] Lee, S. R. (2016). A comparative study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cognition on current state, cause and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ed on students' experienc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ogang University.
- [10] Kim, D. H. (2019). Developmental study of a gamification-based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ogang University.
- [11] Jeon, Y. S. (2017). The effect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on school violence and empath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Gangnam University.
- [12] Lee, S. G. (2017). Teacher's perception, implementation status and support needs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related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13] Sim, P. G. (2016). An analysis of general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about school violence and prevention measures of handicapped students in a middle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14] Lee, C. H. (2015).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related factors perceived by integrated class teachers.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15] Cho, S. J. (2016). The realities analysis of instruction and school-life of students belonging to special education class in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 [16] Kang, Y. J., & Kong, M. (2014). Analysis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the disabled students on school violence - Focusing on the college students who studied i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departments in P area.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1(3), 373-394.
- [17] Kim, S. S. (2016). Th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school bullying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inclusive educatio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19(3), 1-21.
- [18] Bae, J. H. (2019). A study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bully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5), 417-426.
- [19] Kwak, H. & Kim, M. (2014). An analysis of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demands on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for taking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6), 263-281.

- [20] Ju, Y. A. (2014).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in-service and pre-service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7), 101-126.
- [21] Jeong, S. Y., & Shin, S. Y. (2015). Perception of teachers in special schools on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8*(3), 217-237.
- [22] Wu, Y., Bang, M. G. (2013). Comparison of the perceptions between special education teachers and general education teachers on the tendencies of school violenc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in special and general education classes. *Journal of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29*(4), 21-38.
- [23] Kim, J. Y. (2013). The percep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about school violence and the effectivenes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m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Inha University.
- [24] Hwang, J. T. (2005). A study on cognition on serious problem of current school violenc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Research Series*, 05-09.
- [25] Park, J. H., & Jung, S. S. (2012).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recogni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0*(3), 1-19.
- [26] Yoon, C. K., & Kang, M. S. (2012). *A study on parent · teacher's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cultur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research report.
- [27] Dwyer, K., Osher, D., & Wargner, C. (1998). *Early warning, timely responses: A guide to safe schools*. Washington, DC: U. S. Department of Education.
- [28] Lee, C. J., & Kwak, K. J. (1999). *Characteristics and countermeasures of bullying in school*. Seoul: Jibmundang.
- [29] Park, J. H. (2006). *An understanding of aggressive behavior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Relationship between self concept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The 1<sup>st</sup> 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research conference, 212-211. Seou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30] Ministry of Education (2014). *Press release. Announcement of analysis results of the 1st school violence survey in 2014*.
- [31] Song, J. H., Kim, K. S., Park, S. H., Ahn, I. H., Oh, I. S., Eun, H. G., Jeong, J. J., Cho, B. H., Hong, J. K., & Hwang, M. H. (2013). Pre-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2*(1), 109-131.
- [32] 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8 First school violence survey*. Press release (August 28, 2018).
- [33] Chung, J. E., Choi, S. A., Kim, K. T., Yee, J., Kim, J. H., Seong, J. W., Seong, J. M., Kim, J. Y., Lee, K. E., & Gwak, H. S., (2018). Smartphone addiction risk and daytime sleepiness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Paediatrics and Child Health, 54*(7), 800-806.
- [34]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4). *2014 National leisure activity surve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35] Ahn, H. J. (2010). The use actual condition and characteristic research of the internet communication languag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University of Suwon.



- [36] Lim, D. C. (2015). *A study on the adolescents' slang, actual conditions and consciousness of slang,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 [37] Khil, E. B. (2014). Study on adolescents' use of slang and jargon -Adolescents' verbal deviance, is it a culture of passage rit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469-489.
- [38] Jeon, S. K. (2014). The problems of adolescents' linguistic culture on the view point of conversation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9(3), 167-185.
- [39] Hoff, D. L., & Mitchell, S.N. (2009). Cyberbullying: Causes, effects, and remedies.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47(5), 652-661.
- [40] Kim, B. R.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charact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cyberbullying and social anxiet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Hanshin University.
- [41] Ministry of Education (2019). *Press release. 2018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results*. Ministry Press Release (January 30, 2019).
- [42] Hong, J. K.(2009). A study on the status, cause and countermeasure of school violenc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11(2), 237-259.
- [43]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2013 Second school violence survey and information disclosure analysis result*.
- [44] Kumpulainen, K., & Rasanen, E. (2000). Children involved in bullying at elementary school age: Their psychiatric symptoms and deviance in adolescence: An epidemiolog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4, 1567-1577.
- [45] Wolke, D., Copeland, W. E., Angold, A., & Costello, E. J. (2013). Impact of bullying in childhood on adult health, wealth, crime and social outcomes. *Psychological Science*, 24(10), 1958-1970.
- [46] Copeland, W, E., Wolke, D., MRCPsych, A. A., & Costello, J. (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47] Adorno, T. W. & Frenkel-Brunswik, E. & Levinson, D. j. & Sanorid, R. N.(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48] Altemeyer, B. (1998). The other 'authoritarian personality'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0, 47-92, San Diego, Academic Press.
- [49] Peterson, B. E. & K. A. Smirles & P. A, Wentworkth (1997). Generativity and authoritarianism: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political involvement, and parent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204-1216.
- [50] Meer, S. J. (1955). Authoritarian attitudes and dream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1), 74-78.
- [51] Berkowitz, L. (1993).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ewyork: Prentice-Hall.
- [52] Block, J. H. (1983). Differential premises arising from differential socialization of the sexes: Some conjectures. *Child Development*, 54, 1335-1354.
- [53]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1), 1-15.